서구, 오잇길로 청년의 희망 잇는다



오잇길 걷기대회 포스터 /광주 서구청 제공

14일 극락교 하부서 제7회 오잇길 걷기대회 개최…800여명 참여

참가비 5천원 전액 가족돌봄청년·위기청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들의 걸음에 나눔을 더해 우리 곁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서구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극락교 하부(서창둑길 377)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시설·단체, 금융기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여하는 '제7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함께 걸으면 보입니다, 우리 곁의 청년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과 일상을 미뤄야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년의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잇길'은 '오(5)천 원의 나눔으로 이(2)웃의 희망을 잇는 5.2㎞의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영산강변 왕복 5.2㎞를 함께 걸으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고, 참가비 5천 원은 전액 가족돌봄청년과 위기청년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이번 걷기대회는 청년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와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행사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약 1시간 동안 오잇길의 여정과 청년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 음원을 들으며 걷는다.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는 오잇길의 발자취를, 돌아오는 길에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전시한다. 코스 곳곳에 따뜻한 그림과 글귀를 배치하고 반환점에는 위기청년의 삶을 이해하는 공감 전시도 마련한다.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체험과 공연도 풍성하다. 광주보건대 앵커사업단의 스포츠테이핑, 광주여대의 손마사지·네일아트 체험을 비롯해 호남대학교 치어리딩 식전공연과 대중가요팀의 완주 환영 공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 지원, 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부스와 아동보호 캠페인도 운영한다.

지역기관과 기업도 청년을 위한 나눔에 힘을 보탠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을 비롯해 ㈜태림건설, 전승범치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이 후원에 동참해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가영 기자

남구,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새 보금자리에서 새출발

6일 신청사 개청식, 주민 중심 행정 본격화

주민 자치 · 열린 소통 · 공동체 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덕동 행정복지센터가 새 보금자리에서 주민들과 함께 새출발에 나섰다.

6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이 이날 오전 10시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에서 열렸다.

개청식은 새로운 청사의 출발을 축하하고, 신청사 시대를 맞아 주민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은 현장에서 진행된 현판 제막식 및 기념식수 행사에 함께하면서 효덕동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다. 남구는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민원과 복지서비스는 물론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이 각종 민원과 복지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공간을 정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도 확충해 주민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사는 지난 2024년 12월에 착공해 2026년 9월에 완공됐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2,148㎡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창고를, 지상 1층에는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문서고가 들어섰다. 또 지상 2층에는 동장실과 주민자치실, 프로그램실을 배치했으며, 지상 3층에는 회의실과 다목적실 등을 마련했다.

남구 관계자는 "새로운 청사에서 시작하는 첫걸음이 효덕동의 더 큰 도약과 주민 화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주민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청사 개청은 노후 행정시설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원 처리와 복지 상담 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과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효덕동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와 지역 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신청사 공간을 활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수 기자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